

# 강진군, 취업1번지로 '도약'

### 22일부터 이틀간 종합운동장서 강진산단 취업박람회 개최

### 입주기업·관내 개별기업 30여 곳 참여 프로그램 진행

강진군이 취업1번지로 주목받고 있다. 군은 강진산단 내 입주기업의 사업을 홍보하고 주민들의 인식 개선 및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강진군 종합운동장 내 실내체육관에서 '2019 강진산단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강진군 주최,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의 주관으로 추진되는 '2019 강진산단 취업박람회'는 취업에 희망하는 청년 및 중·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강진산단 입주기업과 관내 개별기업 30여 곳이 함께한 가운데 구직등록, 현장면접 및 채용, 부대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강진산단 입주기업들의 사업을 소개하는 '기업홍보마당'을

비롯해 기업별 인사담당자를 배치하고 구인·구직자간 일대일로 현장면접과 상담을 실시하는 '구인·구직 매칭데이',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전문가의 특별강연 및 면접·컨설팅 전문가가 구직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컨설팅을 제공하는 '면접 컨설팅관 운영'까지 지역 내 구인기업과 구직자간 일자리 매칭 및 정보교류의 장 마련을 통해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기업의 인력난 해소로 고용시장을 활성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청년이 돌아오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더불어 행복한 강진 조성에 있어 이번 강진산단 취업박람회가 큰 역할을 하기 바란다. 강진군민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고등학교와 군부대가

지 적극 홍보활동을 펼쳐 구직자들의 취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산단은 당초 저조한 분양률로 미분양 토지대금 327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매월 1억 600만원이나 발생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못했고, 분양률이 16.4%에 불과해 지역의 고민거리 중 하나였다.

이에 강진군은 민선7기 출범과 더불어 군정의 최우선 역점사업을 기업유치를 통한 인구유입 및 일자리 창출로 정하고, '일자리창출과'를 신실, 민간인은 포상금 지급,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가점을 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등 기업유치 불확신을 위한 제도적인 준비를 완료했다.



이같은 군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 추진과 함께 16.4%로 담보상 태이던 강진산단 분양률은 민선 7기 1년 만에 100%로 급상승하는 성과를 얻었다.

총 42개 기업유치에 성공했으며 투자규모가 1조2천630억, 1천126명의 고용효과를 거두리라 전망되고 있다.

강진=김명일 기자

## 완도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수매 시작

완도군은 지난 7일 노화읍을 시작으로 11월 20일까지 8개 읍·면에서 공공비축미곡 매입 물량인 건조벼 35,476포를 수매한다고 밝혔다.



올해 완도군 공공비축미곡 배정 물량은 38,476포/조곡 40kg 기준(산물 벼 3,000포, 건조 벼 35,476포)로 지난해보다 3,176포 대(127톤)가 증가한 물량이다.

이는 논 타작물 재배 사업의 참여율 증가로 인해 인세티브 물량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산물 벼는 지난 9월 23일을 시작으로 11월 15일까지 완도군연합농협미곡종합처리장(RPC) 및 완도농협 고금지점 벼건조저장시설(DSC)을 통해 매입을 완료했다.

포대 벼는 읍·면 일정 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검사 후 매입을 진행하고 있다.

농가에서는 공공비축미곡 매입 시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새 포장재 사용 및 모래·돌·쭈정 등이 이물질이 들어가

지 않도록 잘 정선하고, 적정 수분 13~15%로 건조하여야 한다.

완도군 서현종 경제산업국장은 첫 수매일인 7일 오전 노화읍 공공비축미곡 매입 현장을 방문하여 세 번의 태풍으로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고 출하하는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품종검정제도가 강화되어 매입 품종 이외의 타 품종을 출하할 경우 5년간 매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농가에서는 각별히 주의하여 출하해주시 바란다."고 당부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 목포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 11월 말까지 시 보건소 예방접종실 방문

목포시 보건소가 만 65세(1954년생)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접종을 원하는 대상자는 11월 말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시 보건소 예방접종실로 방문하면 된다.

폐렴은 폐렴구균의 감염으로 생기는 병으로 노인의 생명을 가장 많이 앓아가는 질병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주요 사망원인 가운데 증가폭이 뚜렷한 질병이 바로 폐렴에 따른 사망이다.

독감과 함께 동절기 어르신들의 가장 필수 예방접종인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인 폐혈증, 균혈증, 뇌수막염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이 질환들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우 치명적인 질병이다.

보건소의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다당질 백신(PVC13)으로 65세 이후 접종 시 1회 만으로도 폐렴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만 65세 이전에 접종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면 만 65세 이후 1회 추가접종으로 평생 면역을 획득하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폐렴구균 접종은 독감처럼 매년 맞는 게 아니라 1회 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그리고 폐렴구균 감염증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고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 가능하면 꼭 예방접종을 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접종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예방접종실(270-8800)로 문의하면 된다.

## 진도군, 친환경 쌀 소비

### '가래떡 데이' 나눔 행사

### "우리 농산물 소비 좋은 계기 되길"

진도군은 지난 11일 친환경 쌀 소비촉진을 위해 가래떡 나눔 행사를 진도군청 현관에서 실시했다.

11일 진도군에 따르면 농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법정기념일인 농업인의 날을 맞아 건강한 먹거리 문화 조성을 위한 '가래떡 데이' 행사를 열었다.

가래떡 데이는 11을 뜻하는 한자 '11(十一)'을 합치면 흙(土)자가 된다는 점을 착안해 지정했다.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고 배배로 대신 우리 쌀로 만든 고유 음식인 가래떡을 주고 받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아침 출근길에 가래떡을 선물 받은 공직자들은 "이번 행사가 우리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진도=조성용 기자

## 영암도기박물관 개관20주년 학술세미나



학술세미나에서는 '지역문화의 미래와 지역박물관의 역할'을 주제로 하여 김대환 상명대학교 석좌교수의 기조강연 '구립도기와 영암도기박물관'에 이어 박물관 교육의 방향(모인순, 남서울대학교 교수), 도지문화의 미래와 지역박물관(김미경,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공립박물관의 현황과 과제(정두섭, 양구백자박물관 관장) 등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종합토론은 세한대학교 정기영 교수를 좌장으로 이승춘(동아보건대학교 교수), 최인철(전, 경일대학교 교수) 등이 토론을 진행한다.

영암도기박물관은 오는 11월 14일 오후 2시, 박물관 개관 2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세미나를 왕인박사유적지 영월관에서 개최한다.

영암도기박물관은 지역의 역사문화자원(국내 고화도 시유도기인 구립도기 / 국가사적 제338호 구립도기가마터 출토)을 기반으로 설립된 박물관으로서 이번 학술세미나는 지역민의 삶의 터전인 지역의 문화공간이 갖는 의미를 조명하고, 주민과의 직접적인 소통과 문화 향유의 매개체로서 박물관의 역할과 방향성을 살펴보는 학술행사이다.

영암=조대호 기자

#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